7칸짜리 마음의 집

(마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일곱 칸짜리 마음의 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서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key로 해서 그 십자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마음이 그곳에 찾아가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십자가 열쇠를 가지고만 풀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열쇠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일곱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방 어느 방을 들어가도 다 그 방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방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이 마음 둘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왕좌왕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우왕하고 저거 좋다고 그러면 좌왕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도대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마음이 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늘아버지와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집을…

이게 바로 주기도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맨날 방 4칸이냐 다섯 칸이냐, 30평집이냐 50평집이냐 60평집이냐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마음이 머물 집을 찾으시라 이거에요. 마음이 머물 집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식을 기른다, '아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증권,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다더라'
이리 와~앙 저리 와~앙 바람에 나는 겨처럼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최선의 길이 뭡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최선의 길을 얻어내실 거예요? 자식 기르는 법이라는 책을 서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뽑아서 읽어내면 자식 제대로 기를 수 있습니까? 자식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언제나 최선이에요.

건강문제, 이 몸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면 그게 최선입니다.
돈 문제, 어떤 책을 읽어도 안 돼요.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영역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돈 벌어 만족하겠다고요? 그게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끝이 납니다. 내 마음의 불만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전까지는 무얼 먹어도, 명예를 먹어도, 벼슬을 먹어도, 돈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이 물은 너희가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뱃속에서 일어나는 생수가 돼서 영원히 너희의 갈증을 없애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샘물이 있는 집이 바로 일곱 칸 방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곱 칸까지 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안방 있지요, 거실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서재 있지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곱 칸짜리, 우리가 무슨 진시황이라고 별궁을 지어주신 겁니다.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별궁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첫 번째 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가 막힌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만 가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가 막힌 방입니다. 배부를 수 있는 방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이 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에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내려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통치해 나가실 테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을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삶을 형벌의 삶을, 잘못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오류의 삶을 다 빨아들여버리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고 주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고 천군천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물질, 재물에 대한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 8.15해방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 이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일곱 개의 방,

자, 어느 방에든지 들어가서 한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일곱 칸을 다 도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하루에 한번은 이 일곱 칸짜리 마음의 집에 들어가서 십자가 열쇠로 방방이 열어가면서 들어가서 일곱 칸 방을 다 도는 기도를 꼭 하세요.

서식(徐食)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천히 음식을 씹고 또 씹고 하면서 먹는 걸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방방이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참을 기도하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방에 들어가서 또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10분씩만 기도해서 70분만 기도하세요.
아니면, 배분을 좀 달리해서 전반부 기도에 대해서는 방방이 15분씩 할애를 하고 나머지는 한 5분씩 할애를 한다든지, 어떤 날은 거꾸로 할 수도 있지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7칸을 다 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제 경험으로,
연말연시에 달력을 받게 되면 달력이 돌돌 말려져 있습니다. 겉에 묶여진 줄을 풀어놓아도 도로 또르르 말려버립니다.
일곱 칸 방 중에 어느 한 방을 가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말려버리더라고요. 그걸 억지로라도 다 펴야, 그 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펴야 삶에 전반적으로 평강이 임하면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목숨을 거세요.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서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에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인생을 걸어도 돼요.

자, 그러면 바쁜데 어떡하나, 바쁜데…
어쨌든 일곱 칸을 다 도는 시간을 하루 중에 꼭 한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사를 하는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를 할 때는 일곱 칸 중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방을 찾아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자꾸 주기도를 일곱 칸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적응능력이 생길 거예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 칠 때, 골프공이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치면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치라는 것은 교재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별의 별 상황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곱 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일곱 칸 방 중에 지금 내가 얼른 들어갔다 나와야 될 방이 어느 방인지, 얼른 들어갔다 나와서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의 방에 들어가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만 갖고 있으면 용의 여의주와 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여의주 들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이야기들 중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죽여야 되는데 어느 길목에서 배고파 굶주린 할아버지에게 떡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이상한 구슬을 주십니다. 그 구슬을 들고 모든 적을 무찌르면서 가잖아요? 주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급할 때, 여러분 마음 붙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뭔 걱정입니까?
돈 문제, 사람문제, 일 문제, 사업문제, 자식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뭔 걱정이세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다 해결됩니다. 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방방이 한번 짚어 봅니다.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훑어보는 것이 전체를 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은 <식모누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방입니다.
개가 쫓아올 때 절대 개를 가슴에 안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다. 개로부터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요, 피난 가는 것이다. 이게 식모누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누나! 누나!" 부르면 식모누나가 나와서 그 개를 쫓아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사람이 살다보면 사실 현실문제는 그렇게 큰 풍랑이 아닌데도 마음속에서는 엉켜버릴 때가 있어요. 다 엉켜버립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실제

로 삶의 상황이 실타래가 엉키듯 그렇게 엉킬 때가 있습니다. 이 때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자세를 편하게 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마디만 해도 다 해결되는 걸 느껴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저 시골에 계셔도 이 복잡한 도심지에서 생활하다가 일이 얽히고 인생이 낙담되고 그럴 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농사짓는 것 바라보며, 농사일 도우며, 그 논두렁길을 산책하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참 시간을 보내면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아버지,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엉키고 현실이 엉킬 때, 문 닫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세상 문제로부터 내가 떠나와요.
"아버지, 돈 문제도 신통치 않고, 자식문제도 신통치 않고, 친구관계는 엉켜있고, 직장에서는 잘릴지 모르고 어느 한 구석 내 인생에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안보입니다. 아버지, 직장문제라는 개가 내 마음을 물어서 걱정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재정문제라는 개가 내 마음을 물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제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버지를 향해 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걱정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돈 문제라는 개를 가슴에 안고 철야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피난 가세요. 도망가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문제해결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 등 뒤로 버리고 도망가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반복해서 마치 특수부대요원이 헬리콥터 타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땅을 이륙하는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문제의 개들이 사방에서 내 마음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을 때, 얼른 주기도의 일곱 칸짜리 집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실 거예요.

이때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두 번째 방에서는 내게 요구가 되어 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가면 영원한 샬롬이 내 마음에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지고 완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돈 때문에 불행해진 마음, 건강 때문에 불행해진 마음, 친구 때문에 불행해진 마음, 직장 때문에 애인 때문에 불행해진 모든 마음이 아버지께 가면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 가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걸맞은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요?
젊은 두 남녀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옆을 보니까 여자아이도 잘 생겼고 옷도 멋지게 입었습니다. 아주 둘이 잘 맞습니다. 보기 좋잖아요. 걸맞아야 돼요.
남자가 잘 생겼습니다, 근데 여자의 옷차림이나 행색이 너무 막 돼버렸습니다. 하나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보기가…
자연스러운 것도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워야지요. 머리도 안 감고 떡 진 머리에다 남방은 앞에는 들어가고 옆은 나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 거지같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도 구색을 갖춰서 의도적으로 맞춰 입어야지, 진짜 찢어진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아버지께 가려면 하나님아버지께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거기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걸맞은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그 걸맞은 마음가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붙어서는 안 될 살이 돼버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야 돼요. 거룩이 뭐라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붙지 말아야 될 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에 살이 붙는다는 건 마음이 사랑하면 마음에 살이 됩니다.
내가 자전거 한 대를 사서 그 자전거를 무척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가 살이 되고 난초를 키우면서 난초를 사랑하잖아요? 그 난초가 살이 됩니다. 내 살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아이가 장난하다가 난초가 꺾여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꺾이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전거가 망가지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얼굴에 흠집이 생기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살이 되었으니까…
내 돈이 억울하게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는 그 돈이 내 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아버지께 나가기 위해 걸맞은 마음가짐은 내 마음이 사랑해서 이 땅에서 살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욥의 원리>, 재산 잘라져 나갔지요, 자식 잘라져 나갔지요, 건강 잘라져 나갔지요, 아내 잘라져 나갔지요, 친구 잘라져 나갔지요, 사회적인 명성과 모든 게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마음 하나 남았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욥이.
그러니까 죽기를 간구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살이 찢기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살이 되었으니까 떼 내야 되겠다,' 재산도, 배우자도 다 떼 내고 마음 하나 남은 상태로 아버지와 처음으로 만난 마음상태가 되어야 아버지가 만나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만나지시기만 하면 끝나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 내 마음의 만족함, 이게 뭐 굉장한 수련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잘라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 마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실감나기 시작하면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없어져요. 이게 둘째 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로 만족하고 배부르니까 식후경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식, 이제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버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통치해 주세요. 사업 망하든 흥하든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망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게 좋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는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아, 사업장에 빛 되시는 아버지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게 해 주세요.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를 발견하신 주님처럼 내 사업장에서 활동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통치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통치자의 증거가 뭡니까?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소원을 갖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소원을 갖는 게 바로 통치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셋째 방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넷째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몸이 움직일 때가 되었어요, 또. 내 몸이…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자식 안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안 볼 때 자식에게 하나님나라가 임하고 아내와 남편도 직장에 나가면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집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나라가 임하고, 근데 내 몸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땅에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

장 20절에 사도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동버스의 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전깃줄로 쳐져 있습니다. 내 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전깃줄로 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몸이 전깃줄대로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 소원도 없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아버지의 통치로 가득 가득 차지고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몸을 필요로 하셔서 쓰셔야 한다면 얼마든지 쓰시옵소서, 그리고 성전 삼아 주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처럼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이 몸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달랩니다.

"너는 죽은 자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천 년 전에 죽은 자다, 왜냐하면 네가 살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 너의 모든 행동의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맺혀지지 않으니까 너는 죽은 자다, 네가 돈을 벌든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노릇을 하든지 남편 노릇을 하든지 언제나 너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서 이천 년 전에 너는 이미 죽은 자다" 며 나를 달랩니다. 설득 시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 이상해요, 몸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주어지고, 일에 반응하게 되고, 과제가 떨어지고,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런데 나는 계속 죽었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몸이 움직여지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아세요?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
왼손으로는 계속 반주를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연주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계속 붙잡으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 왼손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오른손으로는 계속 연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소한 일에서도 경험하세요.
자꾸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센세이션 하게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면 또 넘어지게 됩니다. 또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지는 사소한 일에서 주님께서 행동하기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저 마음의 좌심방 좌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 하고 계속 반주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오른손이 저절로 연주가 됩니다.

저절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하고 반주를 넣는 동안에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게 움직여야 할 행동의 틀을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또 마음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동안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좌심방 좌심실은 계속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 …" 하고 있으면 우심방 우심실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늘아버지가 그어놓으신 전깃줄에 닿은 전동버스처럼 그 길을 따라 움직여 가십니다. 이 몸을 이용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방의 방입니다.
인류 모두가 다 돈에 매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재물에 매여 있어요. 저기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돈이 필요한 것은 그 사회 속에서도 돈이 통용이 되니까… 도대체 그 원주민들이 왜 돈이 필요할까 싶어요.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더운 날씨니까 옷 필요 없고,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해방의 선언.
내 입으로 들어갈 밥 먹는 것 말고는 나와 관계돼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물류의 흐름을 아버지의 나라에 내놓습니다, 아버지의 통치에 내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어 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증권 투자할 때 증권회사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됩디까?
내 돈 맡겼더니 다 떼먹었다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요. 내 돈 내놓으라고, 투자해 주겠다더니 날려 먹었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믿고 맡긴 내가 잘못이지…

그러나 하나님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앞에 다 내놓으면 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남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그렇다고 교회에 헌금을 다 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일용할 양식 이외의 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며 죽으세요.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봄 되면 원피스도 사 입히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멋진 운동화도 사주실 수 있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차도 사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고 차를 사면 범죄요 도둑질이고 횡령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 분 이외에서 죽어 하나님나라가 임해서 주시는 차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드라이브를 즐기세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안하고 사 입은 옷은 도둑질 한 옷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옷은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입니다. 그때는 의복이 날개가 될 수 있어요. 날개를 달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세요.

하나하나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없으면 이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하나가 도둑질입니다. 다른 걸 다 도둑질 했으니까 먹는 것도 도둑놈이 먹는 밥이 돼버립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보낸 겁니다.
지사에 사장님이 가시면 지사에서 쓸 돈을 미리 보내 놓는 것처럼 사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쓰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없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 회장님의 돈이 그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의 돈이 그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거라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하다면 이건희씨 돈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내가 그 돈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흘러흘러 나에게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평생 돈 없이 살아도 되지요. 나는 아버지로 만족하고 천국으로 만족하면서,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외에 만 원밖에 안 남는다 해도 그 만 원 하나님 앞에 내 놓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일억보다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보다 다윗의 조약돌이 블레셋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 떼었어요? 손해 안 봐요.
여섯 번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피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줍니까? 저 사람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것은 아마 그 돈이 나에게 있으면 돈이 아니라 독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떼어내신 거겠지요."
그 사람을 우연히 명동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요, 거 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줘 버리면 이상하니까, "그 돈 갚으세요!" 마음은 하나도 원망이 없습니다.

그 돈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그 사람이 떼어갔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피해의식을

극복했으면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임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환해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 이겨내기만 하면, 피해의식들을 이겨내기만 하면…
여섯 번째 방에서,

마지막 일곱 째 방에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모든 불신앙적인 상황으로 접근해가는 순간순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말 한 마디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아버지가 통치하신다더니 이게 무슨 아버지 통치야? 이렇게 밖에 못 하셔? 아니 어느 목사님은 천 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교인 30명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30명이면 어떻고 만 명이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피해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30명 교회라서 잘못 됐습니까? 누가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일곱 개의 무지개 빛깔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타고 하늘 올라갈 수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일곱 빛깔의 일곱 칸의 방이 주님의 십자가를 키로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하늘 아버지와 쿵짝쿵짝 행복하게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듯이 뜻이 이루어지며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로부터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국의 왕자와 공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칸짜리 마음의 집을 십자가의 키로 열고 들어가서 일곱 빛깔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오르내릴 수 있는 하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